



지구촌 양계뉴스

중국

농업부, 신종 AI 감염여부 광범위 조사 착수

중국 농업부가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H7N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농업부는 H7N9형 바이러스가 기존 검출 사례 이외에도 좀 더 넓게 퍼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대책에 나섰다. 중국 관영 뉴스사이트인 중국망(中國網)이 8일 전했다.

농업부는 H7N9 바이러스가 검출된 상하이(上海), 장쑤(江蘇), 안후이(安徽), 저장(浙江)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반을 보내 가금류 시장과 양식장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1만1천229건의 표본을 채취해 감염 여부를 확인 중이다.

농업부는 또 신종 AI 사태 이후 운영하고 있는 'H7N9 AI 방지업무 영도소조'를 응급 대

책기구로 강화 운영하면서 신속한 동물 감염 여부 조사, 투명한 결과 발표, 국제적 협력 등을 통해 감염 확산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현재 중국의 신종 AI 감염자 수가 모두 21명(사망자 6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감염자 발생 지방 정부들도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장쑤성 쑤저우(蘇州)시와 난징(南京)시는 시내에 있는 모든 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 거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물새나 야생 조류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가금류를 외부에서 시내로 들여오는 행위도 엄격히 통제하고 H7N9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살처분하기로 했다.

한편 상하이시는 지난 5일 H7N9 바이러스가 검출된 시장 내 가금류를 긴급 살처분하고 생(生)가금류를 거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 그린경제=온라인뉴스팀

베트남

신종 AI 발생 중국 가금류 반입 금지

베트남은 최근 상하이 등지에서 발생한 H7N9형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중국 접경에서의 가금류 반입과 교역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베트남 매체들이 3일 보도했다.

일간지 베트남뉴스 등은 까오 독 팻 농업지역개발부 장관이 관계기관과 지역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노이에서 열린 관계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팻 장관은 특히 국경수비대, 해군, 공안, 해당 시장 감독기관, 동물 검역 관계자들에게 닭과 오리 등의 가금류 시장을 집중 점검해 감염 우려가 있는 가금류의 밀반입을 신속히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H7N9형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팻 장관은 축산 농가에도 베트남산 가금류 등 신뢰할 만한 품종만 구입해 사육하고 검역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하노이=연합뉴스

홍콩

생닭 판매 전 AI 여부 전수 조사

홍콩 당국은 중국에서 확산 중인 H7N9형 AI의 홍콩 유입을 막기 위해 홍콩에서 판매되



는 모든 생닭에 대해 H7N9형 감염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홍콩 식품위생국은 중국에서 수입된 것과 홍콩에서 생산된 닭 모두에 대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 매일 AI 감염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결과가 4일 만에 나오는 기존 검사와는 달리 결과가 3~4시간 만에 나오는 새로운 검사로 10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홍콩 당국은 H7N9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닭이 발견되면 도살을 시작할 방침이다.

홍콩 당국은 현재 야생 조류가 가금류에 바이러스를 옮긴 다음 이 바이러스가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 사람의 체온에서 살아남기에 적합한 상태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유전자 변형 후 가금류를 거쳐 인간에게 전파되는 만큼 주요 감염 매개체는 가금류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콩 당국은 지난 주말 거리에서 죽은 참새와 비둘기가 발견됨에 따라 사체를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 

- SBS 뉴스